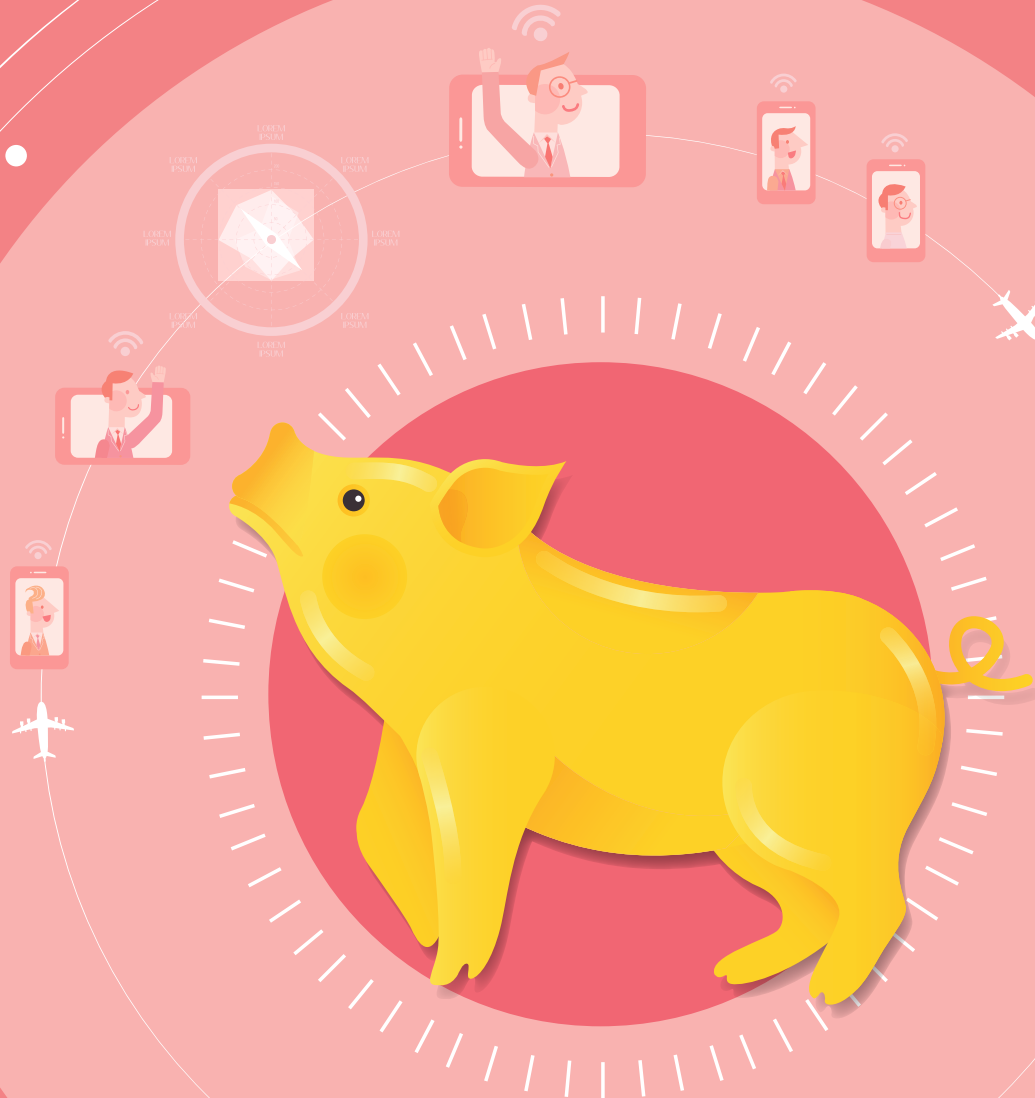


# 가온 누리

vol. 43  
2019. 01



## Editor's Letter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2018년을 돌이켜 보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벨 등

나 자신 그리고 행복에 중점을 둔 트렌드 키워드들이 많았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트렌드 키워드가 우리 삶에 다가올까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제시한 여러 2019 트렌드 키워드 중

저는 '감정 대리인'이라는 키워드에 눈길이 갔습니다. 감정 대리인은 말 그대로 자기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타인에게 말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낯선 단어 같지만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감정 대리인은 많이 녹아 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에서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감정 표현이 가능한 이모티콘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톡에선 매일 약 20억건, 페이스북 메신저에서는 하루에만 약 50억개의

이모티콘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엿볼수 있는 관찰형 예능 프로그램이 떠오르는

이유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 대리인의 계속적 이용은 추후 나의 감정을 공유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해석하고 표현하기보다는 간편하게 내세우는 감정 대리인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시나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간단한 이모티콘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에게 감정 대리를 맡기는 것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여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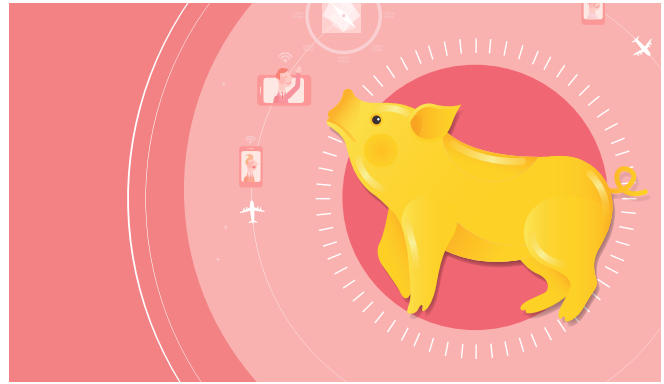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진다면 삶이 더 풍부하고 가치 있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실까요?



# 가온 누리

vol.43  
2019. 01



## CONTENTS

### Opening KAON NURI

- 04 CEO LETTER
- 08 안녕, 황금돼지
- 10 CELEBRATION
- 12 KAON NEWS REVIEW

### KAON Zoom In

- 16 EXPERT COLUMN 네트워크 전문팀 이상엽 팀장
- 18 BUSINESS COLUMN 90년생과 일하기
- 20 EXHIBITION STORY 마케팅팀
- 22 KAON ZOOM IN 채용박람회 후기 - 인사Part 하태웅 파트장

### KAON Culture

- 24 반가워요, 가온인 스마트2팀 박병규 매니저 / 스마트1팀 박찬우 매니저
- 26 PEER RECOMMENDATION RELAY 서유림Part 국회남 매니저
- 28 우리회사동네 이야기 법무Part 임정윤 매니저
- 30 KAON BUCKET LIST
- 32 이것만은 꼭 알아둬시다
- 34 KAON CHECK LIST

### KAON Endorphin

- 36 나의 여행 답사기 국내여행(강화도) - 사업1팀 이창규 매니저  
해외여행(프랑스남부) - America2팀 김혜경 매니저
- 40 TO MY BELOVED FAMILY CS팀 강동운 매니저
- 42 가온다방 사업2팀 명은환 매니저
- 44 KAON RECIPE 밀푼유나베 - 인사Part 한승혜 매니저
- 46 추천 2019 축제편 / 도서편

---

### KAON Nuri 2019.01

발행처 가온미디어 발행일 2019년 1월 18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빌딩

전화번호 031-724-8500(대표)

에디터 기획 Part 김민규 매니저

디자인 편집디자인회사 귀기울 Tel.02-3452-0524

인쇄소 솔텍

www.kaonmedia.co.kr

---

Opening  
KAON NURI





가온미디어 / 가온소프트 임직원 여러분!

Dear employees of Kaonmedia and Kaonsoft,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모든 국내 외 임직원 가정에 황금돼지가 상징하는 풍성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9, the year of the Golden Pig, has finally come. May the families of all of our domestic and overseas employees be filled with the abundance and happiness that the Golden Pig signifies.

2018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방송통신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사적인 노력으로 당사는 7년 연속 매출성장을 일궈내며, 창사 이래 첫 매출액 6천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주지역을 비롯한 지속적인 시장 개척과, AI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선전, 그리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원가혁신 수행 등 임직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응과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온소프트의 2018년은 의미 있는 진전을 했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모델 수주 및 통신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구축했으며, 수주처 확보에 많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완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큰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18 was an eventful year. We have gone through hardships as the market competition became fiercer, the profitability worsened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material prices.

However, we have achieved sales growth for seven consecutive years thanks to our efforts and achieved sales of over 600 million won for the first time since our establishment. I believe this was possible all due the consistent market pioneering including in the Americas, extraordinary advancement in the domestic market focusing on AI products, and rapid response and passionate efforts of our staff through tasks such as preemptive and consistent cost innovation.

Moreover, Kaonsoft has made a significant advancement in year 2018. We have found a specific direction for our future by establishing new business models and strategic plans for offering additional services to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Despite the difficulty with securing orders, we still managed to earn profits.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give a round of applause to all who have fulfilled their rol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our company.

2019년 또한 큰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주도하는 OTT 시장의 폭발적 성장, 경쟁사들의 대형화 등 외부환경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2019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2019 will be a year of many challenges. These include

the explosive growth of the OTT market, which global IT corporations are leading, and the external conditions such as the expansion of our competitors. In order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nd achieve our business goals for 2019, we intend to focus largely on three points.

#### 첫째, 수익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지난 7년간 우리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은 결국 4년 전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올해는 주요 부품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창사 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영업은 시장 개척 및 판가인하 방어, 구매 자재는 원가혁신과 최적의 재고관리를, 연구소와 네트워크 사업본부는 품질 안정화와 제품차별화를, 경영지원본부는 선제적 리딩을 통해 각 프로젝트별로 수익성 등급을 1등급씩 상향시키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실현이며 지속성이 없는 비즈니스는 회사의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선견 선행하여 회사의 존재가치인 수익 극대화에 올인(All-in) 해주시길 바랍니다.

#### Firstly, we must recover profitability.

For the past seven years, we have been experiencing growth externally, but the profitability has consistently been worsening. The market is evaluating cold-heartedly and accurately, and our market value has ultimately returned to the value of four years ago. If we cannot change this current structure, we will be left with no future.

With the cost of major parts expected to drop and stabilize this year, we must achieve the greatest profit in the history of our company. I ask our staff to increase 1 profitability grade for each project with the Sales Team through market pioneering and prevention of markdown, the Material Purchasing Team through cost innovation and optimal inventory management, the Research Center and Network Business Division through quality stabilization and product differentiation, and the

Management Support Division through preemptive leading.

The goal of our company is to create profit, and a business without continuity cannot help the growth of the company. Let us act in advance and give our best efforts to maximize profits, our company's value of existence.

#### 두 번째, 기업가치를 극대화 시켜야 합니다.

주역에 '궁하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할 것이고, 통하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경쟁구도를 파괴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우리가 속한 방송 통신 산업도 이런 파괴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정말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Video로 편중된 사업구조를 Network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체질 개선을 이뤄 기업가치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내실화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100년 기업의 기초를 다지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근심이 생깁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가온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선제적인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Secondly, we must maximize our corporate value.

There is a saying that claims, "If you are desperate, you must change. If you change, it will work and when it works, it will last." The saying perfectly expresses our current situation. The wav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destroys the existing competition will become fiercer and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s industry that we are a part of will also experience this destructive flow. Now is the time when we must change in order to survive. We must increase our corporate value by increasing the business structure, which concentrates on video,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network to over 30%. In addition, we must make 2019 a year for creating the basics of a 100-year corporation by actively securing passive substantiality and future growth engine businesses. If we do not look far ahead, apprehension in the near future is inevitable. As the representative of our company, I plan to take all preemptive

---

measures to increase the value of our company and continue as a part of Kaon Group.

###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이슈들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슈와 리스크 관리로 인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강조합니다. 임직원 모두는 기본에 충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프로액티브한 자세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미리 생각해보고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Good to Great)으로의 발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기업만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Thirdly, we must be faithful to the basics.

Last year, we experienced difficulties in business due to various issues. I think we spent precious time that could have been used to prepare for the future on managing risks. So, I emphasize once more. Please stay faithful to the basics. Please think about the risks with a proactive attitude and be more responsible for your work. I ask that you make an effort to adjust all your work to the clients and the market direction and eliminate inefficient work tasks. We are not far from developing from a good company to a great company. Only those that are faithful to the basics can become a great company.

회사에서는 위 세 가지 경영방침에 따라 부서별 KPI를 철저히 평가하면서 질적 성장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조직과 리더에게는 책임을 묻고,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과 리더에게는 철저한 보상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회사의 10년 더 나아가 10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We will seek qualitative growth while thoroughly evaluating the KPI of each division based on the above three points. Departments and leaders who do not achieve their goals will be held responsible, and departments and leaders who achieve their goals will be rewarded. The future must be created. Let us

---

fulfill 100 years of our company by continuing into the next 10 years with a positive attitude.

임직원 여러분!

2019년은 정말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9회 말 2아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력투구합시다. 실력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해내고야 만다는 사명감으로 최고의 가운을 만들어갑시다! 2019년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만들어봅시다.

뜻깊은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veryone at Kaon,

2019 will become a year of extreme difficulty. Let us all work hard with a desperate heart to overcome this and create the greatest Kaon with strong pride of our capabilities and the sense of duty! Let us make 2019 a year of reaching our goals.

May you be blessed with good health and happiness in this meaningful new year. Happy New Year. 🍀

2019년 새해아침

대표이사 **임 화 섭**

NEW YEAR'S DAY 2019

**Lim Hwa-Seop**, CEO and Founder of KAONMEDIA

# 기해년, 황금돼지들이 더 활약하면 돼지!

## 돼지띠 가온인들의 신년 인사

2019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습관처럼 붙이는 요즘, 올해의 주인공인 돼지띠 사우들의 새해 인사를 들어봅니다.



### **글로벌오퍼레이션본부 류기홍 본부장**

독하게 도전하는 자가 살아남고, 남아 있어야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겪어왔으며, 19년 한 해도 겪을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남으려면, 같은 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이를 프로세스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9년 한 해 동안 이를 철저히 실행하여 글로벌 오퍼레이션에 맞는 일등 품질, 일등 제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1본부 신유훈 본부장**

비가 오고 나면 땅이 굳듯이 2018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고난을 이겨 냈고 기반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이 기반을 토대로 좋은 결실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파죽지세의 기운으로 앞으로 나아 가도록 합시다. 지난해의 과오를 묵은 해의 일로 잊지 말고 올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변화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 연구관리팀 박효원 팀장

2019년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너지(synergy)있는 기업 문화가 많이 생겨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R&R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R&R도 존중하고, 내가 속한 조직의 프로세스를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조직의 프로세스도 존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바쁘다거나 급하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예외를 만들고 회사안에서 타인들이 느꼈을 서운함을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포장해오지는 않았는지 저부터 반성해봅니다. 사실 업무 프로세스의 균열은 프로세스의 자체의 문제보다는 프로세스 사용자들의 무관심과 귀찮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간 업무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통해 가온만의 좋은 기업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좋은 기업 문화가 다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살아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플랫폼2팀 이태호 매니저

다사다난하고 생각이 많았던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치 없는 경험이란 없다는 말처럼 모든 순간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해에는 꼭 이루어서 좀 더 발전되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에게도 가온 임직원분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바라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도 파이팅!



### CS팀 노혁진 매니저

어느덧 저희 회사에서 네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곁에 있는 좋은 동료들 그리고 회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 황금 돼지 해에는 '뭘해도 돼지' 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을 통해 성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직원분들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 인사Part 신영철 매니저

꿀꿀! 83년 돼지로, 가온의 대표 돼지가 되어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은 저에게 아이가 태어나 새 식구가 늘어날 예정이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온인 여러분도 저와 함께 더 행복해지도록 더 적극적으로 많이 소통하고, 임직원 분들의 가려운 곳도 잘 긁어드리는 인사담당자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어찌봐 여겨주시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봐주세요.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니 모두 부자 되시고, 푸근한 마음이 가득하고 통통한 2019년 되세요! 🍀



# Congratulation!

2018년 하반기가 지나는 동안 가온미디어에는 많은 새식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가온인이 되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할 새 동료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주세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꾸릴 사우들에게도  
 축하의 말 한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입사  
했어

8월  
(7명)

김진국 사업1팀 매니저, 김민석 솔루션2팀 매니저, 하태웅 인사Part 파트장,  
 정해성 솔루션2팀 매니저, 이희태 물류Part 매니저, 박찬우 스마트1팀 매니저,  
 박병규 스마트2팀 매니저

9월  
(13명)

정영환 Japan팀 매니저, 이성수 솔루션1팀 매니저, 김효승 솔루션1팀 매니저,  
 정창수 솔루션1팀 매니저, 김태훈 기구팀 매니저, 김현각 구매팀 매니저,  
 김용기 시스템1팀 매니저, 장서연 비서Part 매니저, 김선욱 스마트1팀 매니저,  
 김태용 네트워크시스템팀 매니저, 최태환 솔루션2팀 매니저,  
 박철민 네트워크검증팀 매니저, 김경순 RF팀 매니저

10월  
(8명)

오원석 RF팀 매니저, 이경진 자재팀 팀장, 김정현 플랫폼1팀 매니저,  
 김현득 솔루션1팀 매니저, 심승보 연구관리팀 매니저  
 서완우 네트워크SW2팀 매니저, 안성민 CS팀 매니저,  
 김정진 플랫폼1팀 매니저

11월  
(6명)

김정현 RF시스템 Part 매니저, 김강민 America1 Part 매니저,  
 김범령 스마트 2팀 매니저, 함동희 CS팀 매니저,  
 성상오 네트워크시스템팀 매니저, 문기훈 구매팀 매니저

12월  
(11명)

정경현 America2팀 매니저, 임승한 스마트2팀 매니저, 권두진 Loader Part 매니저,  
 이관용 인사Part 매니저, 윤기현 스마트2팀 매니저, 장규진 스마트2팀 매니저,  
 남문현 솔루션1팀 매니저, 임종범 솔루션1팀 매니저, 원성권 솔루션3팀 매니저,  
 이주현 인사Part 매니저, 염현중 법무Part 매니저

결혼  
했어요



2018년 8월 26일  
CA Part 박종근 매니저



2018년 11월 3일  
솔루션3팀 육근웅 매니저



2018년 11월 3일  
America2팀 박세윤 매니저



2018년 12월 1일  
재무관리팀 김세중 매니저

7월

## KT 호텔전용 AI 단말기('기가지니호텔') 출시

Launched KT AI Device for hotels ('GiGA Genie Hotel')



가온미디어는 지난 2월 KT와 함께 가정용 AI 셋톱박스 기가지니 2 모델 런칭을 성공적으로 이끈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내 최초 호텔 전용 AI 단말기('기가지니호텔')까지 잇따라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가지니 AI 호텔'은 음성인식뿐 아니라 터치스크린까지 갖춰 객실에서 쉽고 빠르게 호텔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음성과 터치로 조명 및 냉난방 제어, 객실 비품신청, 호텔 시설 정보 확인은 물론 TV제어와 음악 감상도 가능합니다. 기가지니 AI호텔은 7월초에 개관한 노보텔엠베서더 동대문에 최초로 적용 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호텔과 리조트 등으로 도입이 확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 싱가포르서 Android TV Oreo 셋톱박스 출시

Android TV Oreo Set-top Box is launched in Singapore



가온미디어가 개발한 Android TV Oreo 셋톱박스가 싱가포르 최대 통신사업자를 통해 지난 8월에 공식적으로 출시 되었습니다. 금번에 출시된 Android TV 셋톱박스에는 구글의 최신 OS인 '오레오(Oreo)'가 적용 되었으며, 오레오에는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이 추가돼 음성명령을 통한 콘텐츠 검색/추천, 스마트 홈 디바이스 제어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레오 버전으로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레퍼런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월

## ‘KT 파트너어워즈 2018’ 기술분야서 우수상 수상

Awarded the Excellence Prize at ‘KT Partner Awards 2018’  
in the technology segment

지난 11월 20일, KT에서 개최한 ‘2018년도 KT 파트너스 데이’의 ‘파트너 어워즈 2018’에서 가온미디어가 기술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KT 파트너스데이’는 KT가 협력사들과 사업방향을 공유하고,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 및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KT는 이날 행사에서 향후 5년간 투자방향과 동반 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KT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파트너 어워즈 2018’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온미디어는 2018년에 KT 기가지니 2 모델과 국내 최초의 호텔전용 Si 단말기를 런칭시키고, 기가지니 누적가입자 100만명 이상 달성성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술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 가온의 AR2040 Extender, Wi-Fi 인증 EasyMesh™ 획득

KAON's AR2040 Extender obtained Wi-Fi certified EasyMesh™

지난 11월 30일, 가온미디어의 AR2040 Extender 제품이 국제적인 와이파이 표준 인증 기구인 와이파이 얼라이언스(WFA)로부터 Wi-Fi EasyMesh™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Wi-Fi EasyMesh™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서로 다른 유무선 공유기를 그물망처럼 조합해 와이파이 신호를 끌어올리는 메시 네트워크를 위한 표준입니다. 자사 제품으로서는 첫 번째이며,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Wi-Fi EasyMesh™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가온의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2월



## 카카오에 '카카오미니C' 공급시작

KAON Media began to supply AI speaker 'Kakao Mini C' to Kakao

가온미디어는 지난 12월부터 카카오에 AI 스피커('카카오미니C') 제품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AI 셋톱박스 국내 상용화 성공경험과 AI 제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번에는 카카오의 AI 스피커 제품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미니의 후속모델인 '카카오미니C'는 기존제품에 충전식 배터리 '포터플랙'(무선으로 최대 5시간 까지 음악 재생가능, 10시간 동안대기 사용가능)과 먼 거리에서도 음성명령이 가능한 리모컨 '보이스 리모트'와 같은 액세서리를 추가해 휴대성을 더한 제품입니다. 가온미디어는 2019년에도 AI 기반 제품 라인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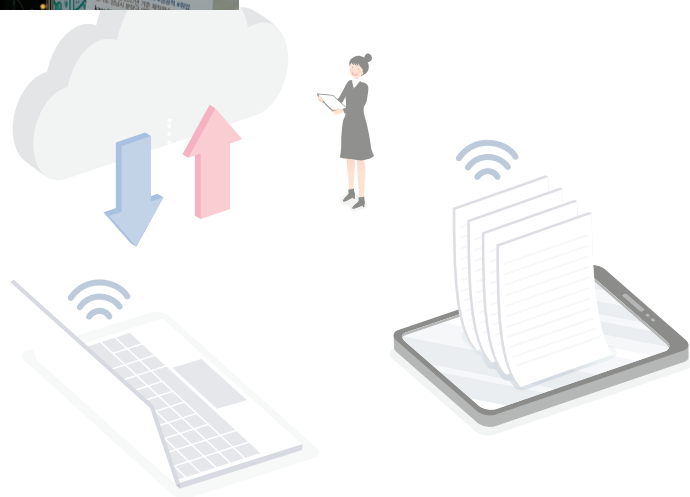
### ‘2018 KT 동반 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 참가

Participated in 2018 KT Win-win Growth Partners Job Fair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알림 1관에서 개최된 '2018 KT 그룹우수 협력사' 채용박람회에 가온미디어가 KT의 우수협력 기업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영욱팀장을 비롯해 하태웅파트장, 공병훈매니저, 신영철매니저가 SW개발, 하드웨어개발(기구/회계설계), 국내/해외 영업 부문 미래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 참가하였습니다. 현장내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부스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소개는 물론 직무역량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즉석에서 채용을 위한 면접까지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

정리 : 기획Part 김민규 매니저





네트워크전문팀 이상엽 팀장

# 알아두면 쓸모 있는 ICT 신기술 XR (Cross Reality)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아우르는 크로스 현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반세기 전에 등장했고,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2010년 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선보이면서 큰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며,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은 최근 교육 및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아우르는 표준 용어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나, 필자는 크로스 현실(Cross Reality: X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이 세 가지 기술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 혼합현실에 가상현실까지 포함한 XR

아래 [그림1]은 1994년 Milgram의 논문 "Augmented Reality: A class of displays on the reality-virtuality continuum"에서 확장한 그림으로써, AR, AV, VR, MR을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왼쪽 끝의 아날로그 현실 세계(Real Environment)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증강현실(AR), 증강가상(AV)을 거쳐서 가상 세계(Virtual Environment)에 도달한다.



(자료) Milgram, "Augmented Reality: A class of displays on the reality-virtuality continuum [그림 1] XR 개념도

XR은 이런 모든 종류의 가상화 개념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Milgram이 정의한 혼합현실에 가상현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 ○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의 특징과 차이점

'가상현실'은 현실세계의 객체나 배경 등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구현해 놓은 인공 세계 혹은 그러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때, 생성된 가상의 상황이나 환경 등은 시각, 청각, 촉각, 느낌 등의 사용자의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뇌를 자극하여 실제와 유사한 시간, 청각, 촉각, 공간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해준다.

'증강현실'이란 용어는 1992년 Tom Caudelle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실제세계의 사물 영상 위에 가상으로 만들어진 영상 객체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증강현실의 범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상현실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이었다. 1994년 Paul Milgram이 증강현실에 대해 현실(Reality)과 가상(Virtuality) 사이의 연속체계(continuum)로 정의하였고, 이때부터 가상현실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분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가상현실에서 보여지는 모든 영상이 가상으로 제작된 것에 비해 증강현실은 실제세계의 객체에 가상 객체로 구현된 관련 정보를 합성하여 증강된 정보 서비스를 부가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증강'이란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 혹은 보강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부가적인 가상 정보를 제공하기에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혼합현실' 역시, 가상현실에서 분리되어 나온 개념으로써 현실세계에 가상 객체들을 섞고 결합시켜서 보여주는 면에서 증강현실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증강현실이 현실 객체와 가상 객체의 구별이 뚜렷하고 현실 객체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상객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혼합현실은 가상 객체가 현실 객체와 동등한 성격으로 등장하고,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마치 가상현실과 같이 몰입감 있게 보여 진다는 점에서 증강현실과 확연히 구별이 된다.

아래 표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간 차이점을 간략히 보여준다.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XR)
		
3D 몰입 입체영상	현실세계에 디지털 콘텐츠 추가	가상 객체와 현실세계와의 통합

(자료) Paul Martin, HP, KVR2018 글로벌 컨퍼런스 [그림 2] VR, AR, XR 개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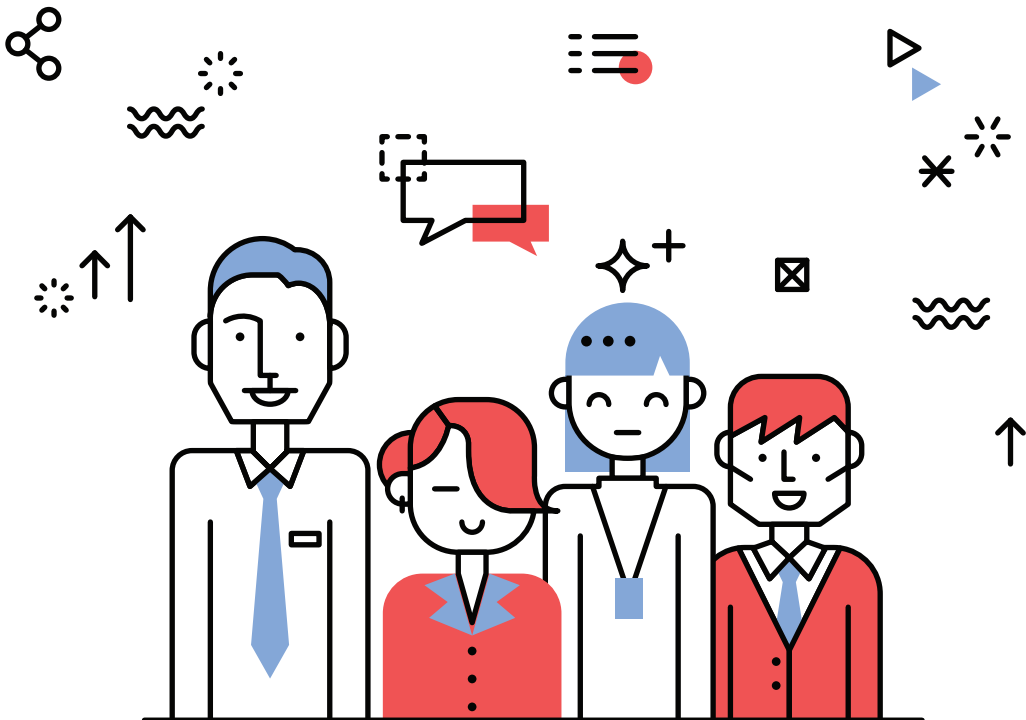
2019년 상용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활용 서비스를 찾기 위해 통신업계가 바빠 움직이고 있는데, 가상세계를 무선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량 데이터의 전송이 필요하므로 XR과 5G 서비스는 잘 들어맞는 공합으로 판단된다. VR관련 기술은 현재 MPEG-H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학계 및 기업에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선도하고, 5G의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를 실현하여 세계의 XR 산업을 이끄는 날을 기대해 본다. 🚀

## 요즘 애들이랑 일하기 힘드네!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한,  
90년생들과 사회에서 만나기

일명 '꼰대 아재'들이 자주 하던 멘트가 있었다. "88올림픽이 열릴 때 태어난 애들이란 말이야 내가 88학번인데!" 그런데 그 88년생들은 벌써, 자그마치 30대가 되었다. 이제 회사에서는 90년생들을 마주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만나오던 신입사원, 직장 후배, 부하직원과는 확연히 다른 90년생들과 사회 안에서 만나 조화롭게 일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90's kids





### 90년생들은 무슨 세대인가?

어느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에서 'X세대'라는 단어가 나오자 교육생들이 키득 키득 웃었다고 한다. 그들에게 X세대란 나이를 많이 먹은 세대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여러 의미들을 축약해 정리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X세대란 90년대를 풍미했던 신세대로서 정치적 이슈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중시했던 세대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연령으로는 386세대 이후 등장한 1970년대생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세대인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흔히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린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사이에는 기존 세대에 비해 출생률이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들 사이에 IT기술로 인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보며 자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 #간단함 #재미 #정직 #그리고 솔직

90년대생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 일관된 것이 있다. 바로 모든 '길고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언어도 다르다. 줄임말이 전방위로 확대된 90년대생들의 언어는 PC통신과 게임이 결합되며 줄어들고 더 줄어들어 이제는 단어와 해시태그만으로도 소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넘쳐나는 정보들 사이에서 긴 글을 다 읽을 여유는 없기에 이들은 짧고 간결하게 줄인 것에 익숙하다. 두번째 특징은 '재미'다. 시대가 변하며 전후세대가 '끼니를 뭐로 해결할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와 이어져 90년대생들의 의식은 기본적인 안전과 생리적 욕구는 이미 해결 된 상태에서 자아실현의 충족을 위해 힘쓰는 '유희정신'에 기울어져 있다. 마지막은 정직함과 솔직함이다. 때로 당황스러울만큼 솔직한 그들의 정직은 'Honest'와는 조금 다른데 오히려 나누지 않고 완전한 생태인 'Integrity'에 가깝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무결한 정직을 요구하고 서로 공유한다. 혈연, 학연, 지연은 일종의 적폐다. '화이트 불편러', '프로 불편러'도 이들의 솔직함으로 등장했다. 개인 권리의 의식과 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과거에는 문제인지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토론과 비판이 활발해 진 것이다.



### 새로운 세대의 직원과 함께 일하기

жат은 이직, 출퇴근 시간, 새로운 채용 방법 등 논할 것이 정말 많지만 간단 명료하게 90년대생들과 더 잘 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지침을 정리하자면, 첫째 이들은 강한 통제 방식이 통하지 않는 세대이다. 강한 분위기의 신입사원 연수로 동료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합을 준 상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세대인 것이다. 또 이들은 숙련공이 되기도 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갈망한다. 본인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과 인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쌍방향 소통의 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버티라고 하지 말고 버텨야 하는 기한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까라면 까'는 시대는 너무나 많이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직을 막지 말고 돕는다는 태도를 권하고 싶다. 입사와 동시에 이직을 생각하는 그들의 이직을 막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 뿐이다. 🍌

\*참고 \_ <90년생이 온다> 웨일북스, 임흥택 저

## 18년 하반기 전시회 소식 Exhibition Announcements for Latter Half of 2018

18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전시회들이 열렸다. 세계 최대 방송통신 전시회인 IBC부터 시작해 케이블 통신 기술자 협회(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SCTE)와 국제 통신망 전문가 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Broadband Experts, ISBE)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통신케이블 전문 박람회까지, 가온미디어가 함께 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전시회 소식들을 모았다.

Various exhibitions were held in the latter half of 2018. From IBC, which is the world's largest broadcasting communication exhibition, to the SCTE-ISBE Cable-Tec Expo("SCTE") which is the largest cable telecom event in the world. We have gathered news on partnered exhibitions that are of interest.

### IBC 2018



#### ● 2018년 9월 14일~18일(5일)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전시장에서 국제방송통신전시회인 'IBC 2018'이 개최되었다. 세계 최대 방송통신 전시회인 만큼 약 1700개가 넘는 업체가 참가하여 미래 방송통신기술을 선보였으며, 약 170개국에서 5만 7천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방문하였다. 당사는 IBC전시회 참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296 sqm)로 참가하였으며, 전년도에 이어 국내외 경쟁사 중 유일하게 AI 인공지능 셋톱박스 및 AI 솔루션을 선보여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AI 솔루션 외에도 4K 셋톱박스, Android TV 솔루션, 와이파이 메시(Mesh) 기술, 10GPON, G.fast, DOCSIS 3.1 등 방송통신 차세대 기술들을 적용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 Broadband World Forum 2018



### ● 2018년 10월 23일~25일(3일)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Broadband World Forum(BBWF)'는 전세계 43개국 150여개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연구기관인 인포마텔레콤매디어가 매년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고속인터넷, 홈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 가상화, 인공지능(AI)등을 주제로 한 전시와 포럼이 열렸다. 당사는 전시회에 참가해 Whole Home Wi-Fi, Gigabit to the Home, Managed Wi-Fi라는 주제와 관련된 주력 제품들을 소개하였으며, 개최 지역의 특성상 유럽 방송통신사업자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다.

## SCTE · ISBE Cable-Tec EXPO 2018



### ● 2018년 10월 23일~25일(3일)

'SCTE · ISBE Cable-Tec EXPO('SCTE') 2018'은 케이블 통신 기술자 협회(Society of Cable Telecommunications Engineers, SCTE)와 국제 통신망 전문가 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Broadband Experts, ISBE)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통신케이블 전문 박람회로, 올해 49회째를 맞이했다. 2018년 행사의 의장인 Cox Communications의 HQ가 위치한 미국 애틀랜타에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포럼과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당사는 2017년도 행사에 전시자로 첫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 연이어 행사에 참가하며 북미 케이블 산업에서 가온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케이블 네트워크장비(HW) 중심이었던 전년도 전시회와는 달리, 금번 전시회에서는 IoT, Smart Cities, Analytics 등의 솔루션/서비스(SW)와 관련된 서비스의 쇼케이스와 컨퍼런스 세션이 등장하였고, 케이블 통신사업자들의 관심이 SW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정리 : 마케팅팀



인사Part 하태웅 파트장

# 가온과 함께 할 인재를 만납니다

## 가온미디어 채용박람회 현장 스케치

우리회사는 지난 12월 5일(수)부터 6일(목)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람1관에서 열리는 채용박람회에 참여했다. 청년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채용박람회에서 잠재되어 있는 미래의 인재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우리회사는 12월에 시행되는 채용박람회인 만큼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조명장식과 시연할 AI(인공지능) 셋톱박스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보답일까. 영하의 날씨에 진행된 채용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구직자들이 현장을 찾아 분주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기가지니 셋팅



부스 셋팅 준비



부스 전체샷

**\* 방송통신융합 시장 중심을 이끌 인재를 찾아라! - 우리는 “가온미디어”입니다.**

우리회사 부스의 슬로건은 “방송통신융합 시장의 중심이 되겠습니다”였다. 업계 최고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기술을 핵심기반으로, 방송 통신 디지털 컨버전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을 꿈꾸는 가온미디어는 우리회사와 함께 방송통신융합 시장의 중심을 이끌 인재를 찾기 위해 채용박람회에 참여했다. 부스에는 ‘2017년 세계 최초 AI 셋톱박스 런칭’과 관련된 설명을 간단히 기재해 청년구직자들이 가온미디어의 사업과 회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가지니를 활용한 화면을 모니터에 띄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데스크에는 회사의 인재상과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이 정리된 리플렛을 비치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경기만큼이나 불확실한 구직시장 속에서도 깨끗한 청년구직자들을 위해 “힘내라! 청춘아!”라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인 비타민 음료를 준비하여 인사와 함께 전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다.



상담 진행사진 1



상담 진행사진 2



테이블 셋팅



### \* 실제 청년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가 만나 소통하는 자리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실제 현장 면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온미디어에서는 30명의 청년구직자와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6명이 현장 면접을 봤다. 청년구직자들은 주로 회사에 대한 소개정보와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해했고, 신영철 매니저와 공병훈 매니저를 포함한 인사 담당자들은 상세하게 현장의 소리를 잘 전달해 주었다.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거나 리플렛을 수집하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격요건, 회사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청년구직자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청년구직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청년구직자가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교류와 구직자들과의 연결 외에도 시간대별로 SI 채용서류 분석 서비스, 면접 코디 컨설팅, 면접 컬러 매칭 컨설팅, 직업심리 검사, 다중지능적성검사,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특강 및 특별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기업과 구직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 \* 채용박람회를 마치며……

짧은 기간의 채용박람회였지만, 청년구직자와 경험과 현장의 분위기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현업에 있으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절실했던 순간들을 회상해 보기도 하고 조금 먼저 사회에 나와 일하는 선배로서 청년구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가온미디어라는 회사에 대해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열정과 패기를 가진 청년구직자를 만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내가 그랬듯이 청년구직자도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청년들이여! 두려움을 생각속에 머물게 하지 마라!”, “도전 뒤에는 실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패는 결국 성공을 위한 그저 과정일뿐이다.” 청년구직자에게 이 두려운 순간이 언젠가는 추억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앞으로도 인사담당자로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청년구직자를 만나기 위해 채용박람회 참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 가온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 KAON Media Interview w/ New Employee

### 가온미디어 신입사원 인터뷰

누구나 처음은 설렌다. 여기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작년 8월부터 가온미디어의 신입사원이 된 반가운 얼굴이 있다.

가온미디어에서 새로운 직장생활을 이어갈 박병규 매니저와 박찬우 매니저를 만나보았다.



미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선도해 나갈 개발자,  
스마트2팀 박병규 매니저님

Manager Park Byung-gyu from Smart Team 2,  
a developer looking to change and lead the  
lives of the future

**Q** 본인의 이름과 부서, 한 줄 소개를 해주세요.  
**Please tell us your name and department with a brief introduction.**

**A** 안녕하세요! 가온미디어에서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2018년 8월 27일부로 신입사원이 된 스마트 센터 스마트2팀의 박병규입니다.  
Hello! My name is Park Byung-gyu and I have recently become an official part of the Smart Center's Smart Team 2, as of August 27, 2018, after completing my 6-month internship at KAON Media.

**Q** 어떻게 가온미디어의 인턴에 도전하게 되었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How did you end up applying to KAON Media's internship and what tasks are you responsible for now?**

**A**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IPP - 장기현장실습제도'를 알게 되었고, 광운대학교와 연계된 여러 기업 중 가온미디어가 제 전공역량(로봇학부 지능시스템전공)과 근무조건이 가장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가온미디어 인턴십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온미디어에서는 정말 스마트하고 위트한 조인재 매니저님과 멘토링하여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양산 S/W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배우고 있으며, NETFLIX 인증을 위한 Test진행(NTS) 및 스마트2팀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While preparing for my final semester of college, I came to know about the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 program hos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mong the numerous corporations linked with Kwangwoon University, I believed KAON Media was the best fit with my major(Intelligent Systems Major, Department of Robots) and desired work conditions. So, I immediately applied to KAON Media's internship program. Currently, I am mentoring with the smart and witty Manager Cho





In-jae and I am working on and learning about mass production software development for the Android set-top box. I am also conducting tests for NETFLIX verification and supporting Smart Team 2.

**Q '가온미디어'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다면?**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KAON Media?**

- A 신입사원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낀 '가온미디어'만의 특징과 장점은 바로 수평조직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 진행 시 공유하는 문화도 정착이 되어, 잘 모르는 정보를 쉽게 얻고 협업하여 함께 성장하는 회사인 점에서 이 시대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KAON Media as seen and experienced by a new employee is the horizontal-type organization culture. Moreover, I can say that it is a company that



맡은 업무를 확실히 해내는 믿음직한 사원,  
스마트1팀 박찬우 매니저님

Manager Park Chan-woo from Smart Team 1, a reliable employee successfully fulfilling all of his responsibilities

**Q 본인의 이름과 부서, 한 줄 소개를 해주세요.**

**Please tell us your name and department with a brief introduction.**

- A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우입니다. 저도 박병규 매니저와 함께 가온미디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가온미디어에서 내딛게 되어 아직 설레기도 하면서 기쁩니다. Hello, my name is Park Chan-woo and I am working on the Smart Team 1. I also became a member of KAON Media with the manager Park Byung-gyu. I am still excited and happy to take my first step into society together with KAON Media.

**Q 어떻게 가온미디어의 인턴에 도전하게 되었고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How did you end up applying to KAON Media's internship and what tasks are you responsible for now?**

- A 저는 평소에 안드로이드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IPP-장기현장실습제도로 여러 기업을 찾아보던 중 지금의 회사를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저의 꿈을 펼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확신이 들어 가온미디어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하여 제품 양산시 검증용 프로그램을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현재는 IPTV 박스 제품의 메인 엔지니어로서 프로그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I had been very interested in Android development. While searching for numerous companies through IPP, I found out about KAON Media. I decided to apply for KAON Media's internship program after becoming determined to strive for my dreams and challenge myself at this company. Since entering, I've been responsible for the program for verifying products during

this generation's youth envies in the fact that the employees grow together by sharing information they may not be aware of while working together.

**Q 가온미디어의 가족으로서의 각오를 말해주세요**

**Please give us a final statement as a member of KAON Media.**

- A 큰 꿈을 꾸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습니다. "미래의 삶을 변화시키고, 선도해 나가는 개발자가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항상 즐기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I believe that if you dream big and make an effort, nothing is impossible. I will do my best with a joyful heart and pursue my dream of becoming a developer that changes and leads the lives of the future.

mass production and currently, I am reviewing programs as the main engineer for IPTV set-top box products.

**Q '가온미디어'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다면?**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KAON Media?**

- A 가온미디어는 안드로이드 기반 및 리눅스 기반의 셋톱박스, 그리고 AI 셋톱박스까지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심만 있다면 여러 가지 플랫폼을 경험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에도 부서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one can experience and learn much about various platforms if one is interested as KAON Media is working on various types of projects from set-top boxes based on Android and Linux, and even AI set-top box. Even when conducting the projects, I also believe being able to collaborate without being limited to one's own department is also a great advantage.

**Q 가온미디어의 가족으로서의 각오를 말해주세요**

**Please give us a final statement as a member of KAON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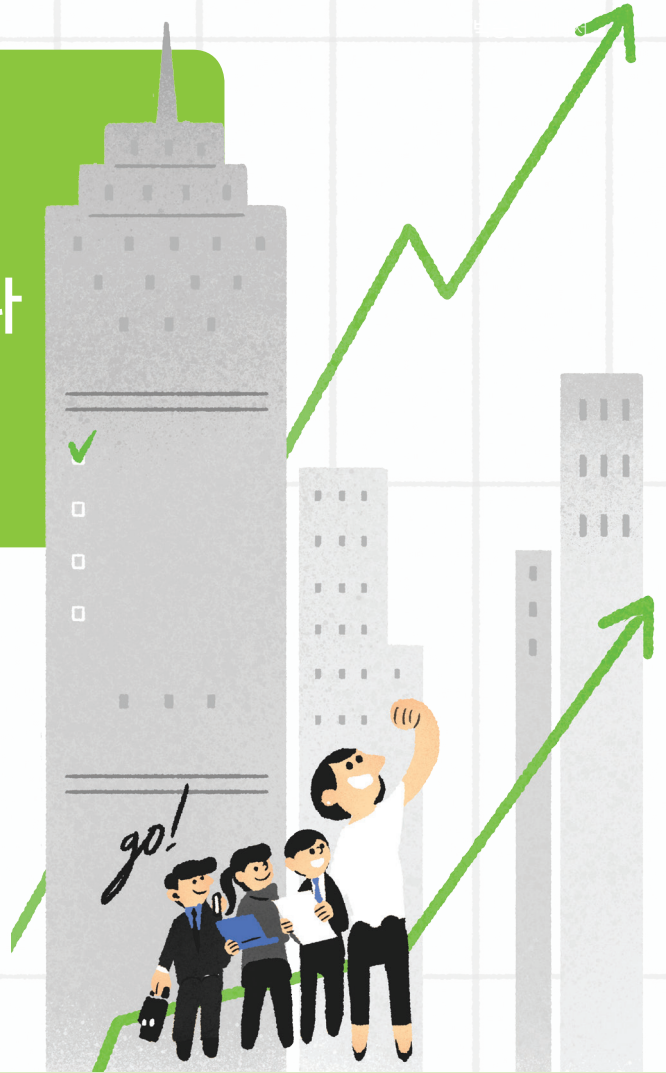
- A 제가 맡은 업무를 확실하게 해내는 믿음직한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여 가온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d like to become a reliable employee who always completes assigned jobs successfully. Although I am still lacking, I believe I'll achieve good results if I continue to diligently make an effort. I will do my best to become a necessary worker at KAON by taking on all tasks with a positive mind amid a passion for what I do. 🍀

# 실무를 이해하고 현장이 반영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갑니다

서유럽Part 국희남 매니저가  
영업지원Part 문윤서 매니저에게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일하며 어려운 점도 있고 뿌듯할 때도 있고,  
함께 웃을 때도 울 때도 있는 가온의 동료들에게  
평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기쁘게 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의 그 기분 좋은 시너지는 옆자리,  
우리 팀을 넘어 가온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 웃음과 긍정 에너지를 멀리, 널리 퍼트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럽Part 국희남 매니저입니다.

제 짓궂은 장난에도 언제나 너그럽게 웃어주시고 거기에 칭찬까지 해주시는 김동규 매니저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동규 매니저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오히려 김동규 매니저님께서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분들에게 즐거움과 웃음을 주고 계시는데 그 칭찬을 제가 대신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지칠 수 있는 가운 생활에서 웃음과 긍정 에너지는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양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기운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Guk Hee (Yvonne) Nam, the manager of Western Europe Par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deeply thank manager Kim Dong-gyu in the purchase team who always generously responds to my mischievous jokes with laughter and even goes so far as to give compliments. When he complimented me, I felt like I received praise which was supposed to go to him. He always gives me and my co-workers a lot of pleasure and laughter. People are easily exhausted by work but I believe that laughter and positive energy are important nourishment essential at our workplace. I will do my best to allow us to give each other only positive energy.

## 실제로 개선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갑니다

이번에 <가운누리>를 통해 제가 칭찬하고 싶은 동료는 영업지원 Part의 문윤서 매니저님입니다.

많은 해외영업 인원들이 출장이며 각종 사건 사고들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꼭 챙겨야 하는 수주표 관리나 채권 정리 등에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영업 담당자 각각은 담당하는 프로젝트만 챙기면 되지만 문윤서 매니저님은 모든 담당자들의 프로젝트를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이 아주 클텐데요. 그럼에도 항상 차분하게 제 업무에 부족한 부분이나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히 지침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매, 물류 및 기획 등 관계부서들과 협업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 실무에서 이뤄지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영업적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로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문윤서 매니저님처럼 각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최대한 그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실제로 개선했고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강조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별써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운인 모두가 2019년에도 계획하시는 일들 말씀하고 아름답게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행복하시고 건강하소서.

The coworker whom I would like to compliment through this Kaon Nuri is Mun Yun-seo, the manager of Sales Support Part. Many overseas salespersons sometimes often come to neglect their purchase orders or receivables which are supposed to be well managed because they are busy with business trips and various accidents and incidents. Although salespersons have to manage their projects only, Manager Mun Yun-seo has to take care of everyone's projects. She must be extremely burdened by such a work load. Even so, she always gives me kind instructions about any lacking or delayed parts in my work and supports me. I sincerely thank her for this. Also, for the sake of establishing practical processes required for cooperation with other related departments including Purchasing, Logistics, and Planning, she is helping us a lot in the establishment of processes that can really be used in the sales department by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work well and actively reflecting difficulties in sales activities. Although many people are working to improve processes, it is hard to find other examples of people understanding the work of other departments and putting forth efforts to apply such things as much as possible as Manager MunYun-seo does. Our abstract, unnecessary processes are improving in practical ways and thus we are receiving help at an operation level. I would like to emphasize this point and praise her great work.

The year 2019 has already started. I hope all KAON Media employees can neatly and beautifully achieve everything they are planning in 2019. I wish for your health and happines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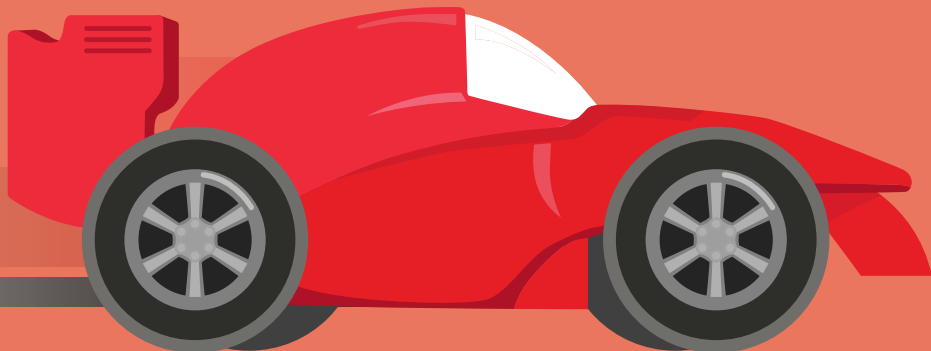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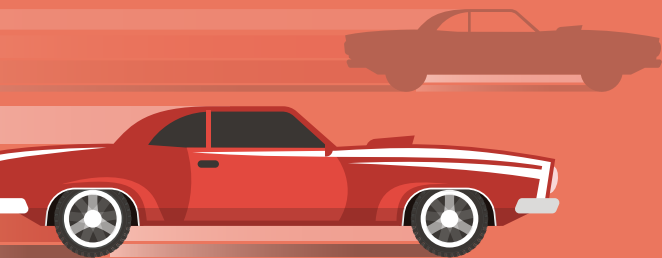
법무Part 임정운 매니저

# 이색 신년회, 2차 장소로 레이싱 한판 어떠세요?



## GTR 드라이빙 카페

〈가온누리〉에서는 우리회사 주변, 나만의 최애 장소를 소개하는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맛집이나 카페가 아니더라도 눈 오는 풍경이 예쁘게 보이는 회사 내 창문, 점심 시간 커피 한잔 마시기에 가장 좋은 주변 벤치 등 매일 출근하는 회사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사우들과 공유해 주세요. 첫번째로 디저트 카페 아라리오브네에 이어 이번 〈가온누리〉 신년호에서는 드라이빙 카페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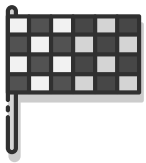


### 퇴근 후, 한번 달려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법무Part 임정윤 매니저입니다.

추운 겨울, 이색적인 송년회/신년회를 즐길 수 있는 레이싱 카페를 가온 임직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회사 근처 야탑역에 레이싱 카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야탑역 3번 출구쪽, 미스터 피자 있는 건물에 바로 최첨단 장비로 세팅된 'GTR 드라이빙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파트에서는 가끔 회식 후, 2차 장소로 레이싱 카페를 가곤 하는데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레이싱 카를 내 마음대로 고르고, 레이싱 시트에 앉아 쾌속 질주를 하는 스릴감은 차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폭 빠져버리게 됩니다. 매장 안에는 약 8대 정도의 레이싱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장 점원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부서별 경주나 개인 경주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작은 행사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몰입감과 현장감이 주는 새로운 재미

제 개인적인 추천 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악셀을 밟으면 생각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직선 위주의 맵이 아닌 곳에서는 섬세한 나노 입자급 컨트롤이 중요하구요. 코너 위주의 맵들이 있는데, 도로가 아닌 곳이 잔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냥 직진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도로 위가 아닌 잔디로 달렸다가 비싼 레이싱 자동차가 금방 벽에 부딪혀서 누더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참고로 벽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차량 외형이 파손되는데, 그러면 운전이 잘되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사실 제가 직접 레이싱 차량을 운전해 본 경험이 없어서 실제 레이싱 차량을 운전할 때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이싱 시트와 핸들이 가져다주는 몰입감과 넓은 모니터와 사운드 환경이 가져다주는 현장감은 꼭 회식이 아니더라도 혼자 종종 찾아가서 즐길 만큼 새로운 재미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송년회/신년회 장소로 어디를 가야할 지 고민이 되신다면, 레이싱 카페에 꼭 들러보세요~  
마지막으로 송년회/신년회 게임은 게임일 뿐,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

# 꿈을 적으면, 현실이 됩니다



## 가온인들이 말하는 우리의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bucket list)란 죽기 전에 꼭 해 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킥 더 버킷(kick the bucket)'이란 표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이루고 싶은 꿈을 종이에 적어 눈에 보이게 표현하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가온인들이 살아가면서 꼭 해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가온누리>에 적어봅시다.





✓ SQA Part 김동현 파트장의 인생 버킷리스트

- 아내와 단둘이 세계 일주 가기
- 전세계 맥주 최소 500가지 이상 마셔보기
- 세계 3대 Festival 참가해 보기(나혼자)
- 우리딸 연예인 데뷔 시키기(아빠는 매니저)
- 제주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노후생활 보내기(1층은 커피숍)



✓ 시스템 센터 김영근 매니저의 19년 버킷리스트

- 캠핑을 작년보다 더 많이 가고(최소 5회 정도) 아이들과 시간 더 많이 보내기
- 배우자와 긍정적인 대화 좀 더 많이 하기
- 무엇이 됐든 취미생활 하나 만들기
- 영어 듣기, 말하기 마스터 하기
-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기



✓ America2팀 전경언 매니저의 인생 버킷리스트

- 남극 한달살기
- 바이크 세계일주
- 캠핑카 끌고 유럽여행
- 지리산 종주('19년 버킷리스트)
- 복권당첨



✓ EMS팀 이강우 매니저의 인생 버킷리스트

- 컴퓨터&업무관련 자격증 2개 이상 따기
- 4대 프로축구 리그 관람(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 수영 배우기(물 공포증 극복)
- 요리 10가지 마스터 하기
- 아내 닮은 2세 갖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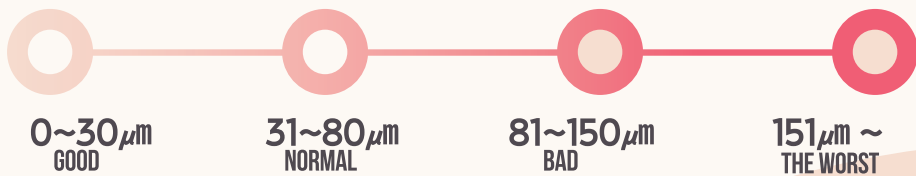
✓ 기구팀 정해인 매니저의 인생 버킷리스트

- 내 집 마련하기
- 스위스에서 스카이다이빙 하기
- 1년 넘게 한 분야 꾸준히 운동하기
- 사막에서 밤하늘 보기
- 항공 마일리지로 여행가기 ✈️

## 작은 먼지가 맵다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마음 놓고 외출 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의 미세먼지 앱을 켜 오늘의 미세먼지를 확인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하늘이 맑아 보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양호'여도 초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최악'일 때가 종종 있어 반드시 초미세먼지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아이콘은 새카만 색으로 방독면을 쓰고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를 외칩니다.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미세먼지는 두렵습니다.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너는 대체 누구냐!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한 올의 약 1/20~1/30에 불과할 정도로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의미합니다. 단위로말하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거쳐 체내에 침투하기가 쉬운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작을수록 더 위험한 미세먼지는 작을 수록 체내 깊은 곳(폐포, 심장, 뇌 등)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널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최대한 멀리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 입보다 코로 숨쉬기

입은 필터가 없지만 코는 천연 필터가 있습니다. 콧속 섬모들이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작용을 도와줍니다.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너무 작아 전부 걸러주지는 못하지만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는 미세먼지를 조금 더 걸러줄 수 있습니다.



### 외출 후 깨끗하게 씻기

외출 후에는 집 안에 들어오기 전 옷을 충분히 털고 욕실로 들어가 바로 씻어야 합니다. 씻고 나서는 물로 평소보다 많이 헹궈줍니다. 코와 입 속도 거즈 손수건이나 면봉 등을 이용해 닦아내 몸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제거하고 양치질을 합니다. 또 손·발·눈·코 안 점막 세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 청소기보다 물걸레질 하기

청소기는 바닥의 먼지들까지 공중으로 띄우고, 청소기를 돌리는 동안 청소기 필터에서 미세먼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방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려 공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물걸레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청소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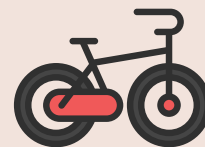
### 물, 비타민C 충분히 먹기

미세먼지에는 먼지와 중금속 등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는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으로 비타민B, 비타민C,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삼겹살 말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을 하루 8잔(1.5ℓ) 이상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 마스크 필수

답답해도 마스크가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등급이 낮은 마스크라도 쓸 경우에는 약 46% 정도의 미세먼지가 차단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급(KF)이 높을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잘 막아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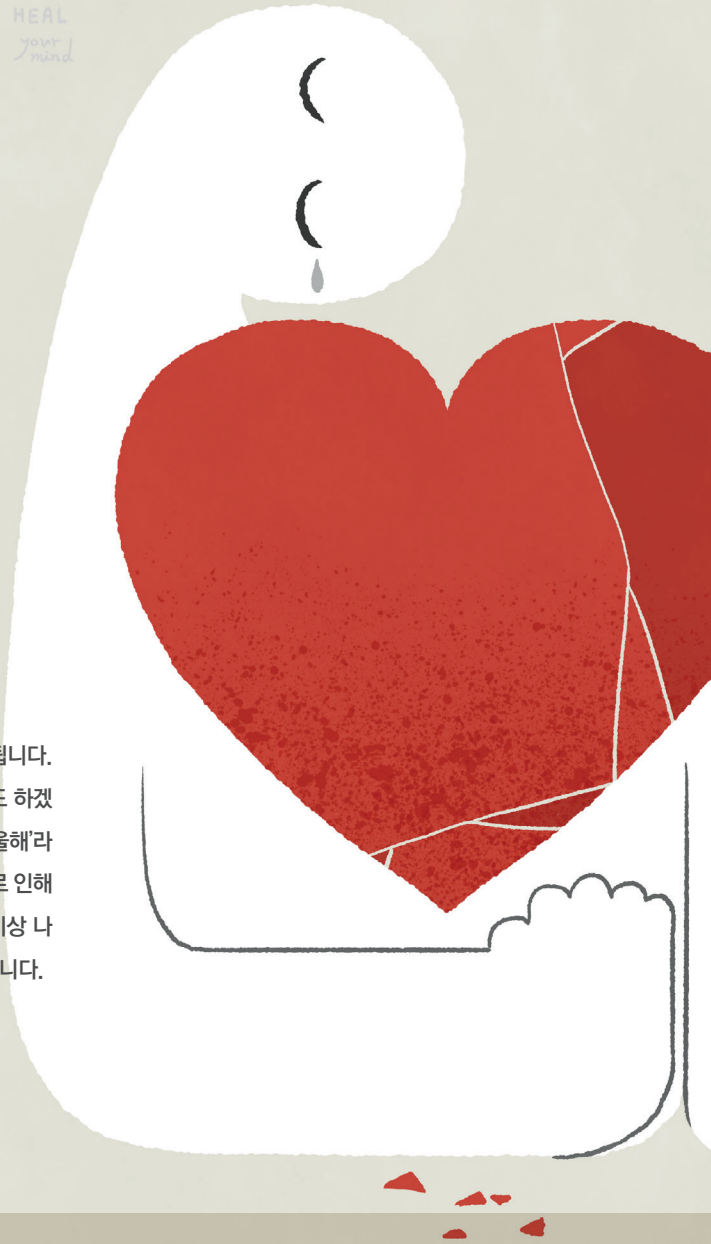
### 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 차 안은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환경단체 '글로벌 액션 플랜'이 지난 2014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지역을 자전거로 이동할 때보다 자동차를 이용할 때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

##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요즘 기분이 영 별로야

우울한 기분,  
그냥 넘기지 말고 체크하세요

올해부터 국가 건강검진에 20세와 30세의 청년 우울증 검사가 실시됩니다. 그만큼 청년 세대의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우울감은 누구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이지만, '나 요즘 좀 우울해'라는 말이 단순히 요 며칠 우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인해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증상이 거의 매일, 하루 종일 2주 이상 나타나다면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나만 이렇게 우울한가?

우울증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월, 우리나라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가 약 61만 3,000명으로 전체 국민의 1.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 연간 감기 환자 수와 엇비슷한 수의 국민들이 우울증을 한번쯤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우울증은 어른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방정환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2017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의 결과를 보면, 자살 충동을 경험한 초등학교생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4~6학년 약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012년 12.1%에서 지난해 18.5%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기간 중학생은 23.4%에서 22.3%로, 고등학생은 29.9%에서 26.7%로 감소했지만, 이대로라면 초등학교생의 자살충동 경험자 비율이 중·고등학생 수준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신도, 부모님들도 우울증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변의 지인들, 가족, 약물과 상담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대한우울조울병학회에서 공개한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각 항목마다 자신이 느끼기에 아니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심하다 2점, 매우 심하다 3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합니다.

- |                                      |                                 |
|--------------------------------------|---------------------------------|
| 1. 슬픈 기분이 든다                         | 12.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
| 2. 앞날에 대해 용기가 나지 않는다                 | 13. 예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며 미루게 된다 |
| 3. 괜히 울음이 나온다                        | 14. 내가 전보다 못생겨졌다고 생각한다          |
| 4. 지난 일들에 대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 15.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       |
| 5.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 16. 잠을 잘 못 잔다                   |
| 6. 종종 죄책감을 느끼곤 한다                    | 17. 쉽게 피곤하다                     |
| 7.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 18. 입맛이 없다                      |
| 8.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 19. 몸무게가 줄어들었다                  |
| 9.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 나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 20. 몸에 이상이 있을까봐 걱정한다            |
| 10.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 21. 전보다 성생활에 흥미가 없다             |
| 11.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난다              |                                 |

결과: 항목의 점수를 더해 총 점수가 11점 이상이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걸렸을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마음의 감기일 뿐이야. 괜찮아

우울증을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mbc 팟캐스트 '우울증도 괜찮아'에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꺼려지는 분위기가 문제다. 우울증은 병이다. 내가 노력한다고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혼자서 이겨내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더 병을 키 워 나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의 나약한 의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병, 아픈 것일 뿐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울증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을 위해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음의 감기일 뿐, 괜찮아요. 🍵

\*참고 \_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시선뉴스 홈페이지, 국민일보, 중앙일보, 심리상담센터 허그맘블로그, 보건복지부 외



사업팀 이창규 매니저

KAON  
Endorphin

# 좋은 사람들과 떠나는 여행은 항상 옳다

## 사업1팀 이창규 매니저가 친구들과 떠나는 강화도 여행

첫눈과 함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가온인 여러분들은 연말에 여행 계획 세우셨나요?  
이번 기회에 가족, 친구, 연인분들과 함께 올해를 마무리하는 여행을 떠나시는건 어떨까요?  
저는 친구 8명과 매월 돈을 조금씩 모아서 1년에 1~2번 국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떠나는 여행이다보니 주의할 점도 많고 의견도 많지만 그만큼 또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의 이번 여행지인 강화도를 소개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떠나는 여행은 항상 옳다

### 투표로 여행지를 정하는 색다른 설렘

여행을 함께 가는 친구는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라는 것 아시죠? 친한 친구들도 여행을 가서는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저희는 매달 돈을 모아 다 같이 여행 가는 일이 큰 즐거움입니다. 대신 인원이 많다보니 모두 이견 없이 즐겁게 가기 위해 저희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여행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서 여행을 가기 전 필수적으로 각자 여행지 및 펜션 1곳을 추천하고 투표를 통해 최종 1곳을 선정하여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먼저 각자의 여행 선호도에 대한 투표를 하는데, 크게 세가지 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경 좋은 곳에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며, 낚시를 좋아하는 낭만파, 다음은 여행은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먹방파, 마지막으로 펜션 및 근처에 축구장 등 운동시설이 있어야 하는 운동파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운동하는걸 좋아해서 '꼭' 3번 위주로 투표하는 편입니다. 각자 선호하는 여행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여행 전 늘 설렘 가득한 것 같습니다.



### 풍경 좋은 곳에서 맘 흘러 운동을 즐기는 남자들의 여행

투표를 통해 이번 여행지로 강화도의 '저어새 펜션'이 결정되고, 사전에 맛집 등 근처 정보를 찾아 강화도로 1박 2일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여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다들 걱정이 많았었는데, 수원에서 강화도가 가까워 질수록 비가 조금씩 그치더니 도착 즈음에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화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펜션 도착과 동시에 강아지 6마리가 걸어 다니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중에 한 녀석이 가장 귀여워서 사진도 찍었습니다(아마도 지금은 많이 컸겠죠?). 앞에는 탁 트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마니산이 우뚝 서 있으며, 철새 식지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주변을 보니 가족 단위로 많이들 놀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바다도 보고 강아지들과 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본격적으로 모두가 좋아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족구, 농구, 탁구.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다같이 열심히 운동을 했네요.

### 친구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즐거운 1박 2일

운동을 하니 출출해져서 사전에 맛집으로 검색한 '편가네 된장'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방 간장게장 + 강된장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간장게장 먹을 때 가끔 비린 게장의 맛이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신선한 재료 및 소스로 만들어서 그런지 비린 맛이 없고 게살도 푸짐하고 짭짤하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다같이 식사 후 낚싯대를 들고 해질녘 바다를 보면서 낚시도 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잠자기 전 다 같이 '마피아 게임'도 하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1박 2일 즐기고 왔습니다. 여행 스타일이 다른 우리를 모두 만족시킨 인천 - 강화도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





America 2팀 김혜경 매니저

## 여유, 그 자체의 힐링

### 남프랑스에서의 일주일

지난 9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프랑스 1주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그라스, 베르동 협곡, 무스띠에 생뜨마히, 니스를 포함한 근교 마을, 모나코입니다. 저는 좀 더 유동적인 여행 일정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여 그날 그날 루트를 정해가며 프랑스 남부의 이곳 저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갔던 모든 곳들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기억 남는 몇 곳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 베르동 협곡('Verdon Gorge')

베르동 협곡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깊은 협곡으로, '유럽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협곡 아래 옥색깔의 물, 기암괴석 사이에서 페달보트를 타며 대자연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협곡 길을 타고 올라가며 드라이브하는 것 또한 매우 환상적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협곡의 모습은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대자연 그 자체였습니다. 밤에는 별이 하늘에 가득했고, 은하수가 보일 정도로 날씨가 맑아서 차를 세워두고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 1 베르동 협곡
- 2 베르동 협곡 식당



2



3

- 3, 4 아를의 야경
- 5 와이너리

### 반고흐의 도시 아를('Arles')과 프로방스('Provence')와이너리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 들 중에 예술가 반고흐와 와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흐가 사랑한 낭만의 도시 아를과, 남프랑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와이너리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아를의 구시가지 를 둘러보고, 론강 근처를 산책하며 저 또한 아를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를에서의 아쉬운 여정을 뒤로하고 'La Coste' 라는 와이너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주에 'Museum San' 을 건축한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지은 와이너리로 그 건축물 자체의 작품성과, 다양한 포도 품종을 보유한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 Chateau였습니다. 와인 투어 마지막엔 로제 와인을 시음할 수 있었는데 뜨거운 햇빛 속에서 와이너리를 걷고 난 후에 마신 시원한 Rose d'une nuit의 청량감은 낮동안의 여정에 지친 저에게 다음 여정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를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남프랑스 여행은 박물관, 관광지 위주의 여행에 지친 저에게는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생활을 떠나 와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남프랑스로 여행을 떠나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4



5



CS팀 강동은 매니저

# 소중한 우리 아가, 다연이에게







## 소중한 우리 아가, 다연이에게

2018년 2월 어느 날, 네 소식을 처음 접한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


출근을 위해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눈물이 글썽하게 맺혀서 아빠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 위엔 정확히 두 줄이 그어져 있었어. 그때의 환희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니... 그토록 바래왔던 그 두 줄의 선명함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엄마, 아빤 서로를 부둥켜안고 너의 소식을 마음껏 기뻐했단다.

다연이의 태명은 '토리야'. 외할머니 꿈에 큰 밤톨이 나무 위에 주렁주렁 달려있더라. 밤톨의 뒤 자음을 따서 토리라고 짓게 된 거야.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 같기도 하고 어감이 귀엽다고 주변 분들이 태명을 많이 불러주셨어. '토'라는 자음 영향 때문인지 엄마는 네가 배 속에 있는 내내 토마토를 엄청 잘 먹었어. 재밌지? 커다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만족해하는 엄마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 그렇게 10개월이란 시간을 엄마 뱃속에서 보내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다연이가 태어났어. 그날은 유난히도 날씨가 청명했었다.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디딘 너의 뺨을 자르는데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족이 됐음이 실감나더라. 아빠로서 이 기적을 행복으로 잘 지켜 줘야겠다는 책임감도 들고 말이야. 다연이에게 "토리야, 아빠야..."하고 말하는데 어찌나 뭉클하던지. 평소에 눈물 없는 아빠가 결국 눈물샘이 터졌었어.

엄마, 아빠의 간절한 바람으로 태어난 소중한 우리 아가, 다연아.

요즘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너를 보는 일이야. 네가 울고 짜증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 환하게 웃어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단다. 정말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까. 동글동글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우리 다연이, 귀하게 우리 곁에 온 만큼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 가족 사랑할거야. 지금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주길, 작은 것에 행복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너의 주변엔 늘 진실한 사람들이 함께하길, 크고 작은 꿈들을 간직하며 이루며 살기를!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두 사람 엄마, 아빠가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우린 항상 네 편이야. 사랑해.

다연이에게 아빠가 



사업2팀 명은환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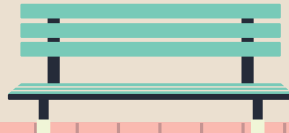
# 수영, 잃어버린 키를 찾아준 고마운 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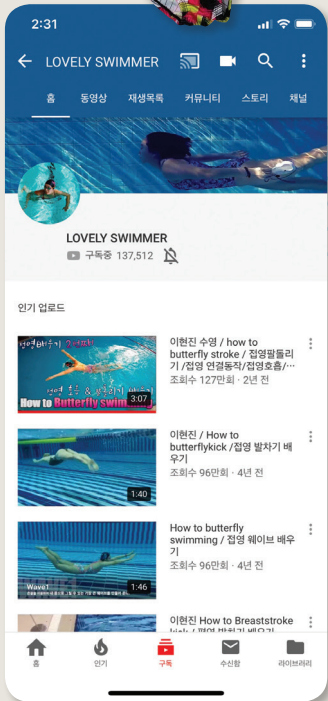


명은환 매니저가 찾은, 퇴근 후 확실한 행복

## 2018년 목표 중 하나였던 접영 마스터!

어린 시절, 한동안 수영을 열심히 배웠지만 접영을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고 그만뒀었습니다. 그 아쉬움으로 대학생 때, 다시 용기 내서 수영을 배웠지만 접영이 좀처럼 늘지 않아 2~3개월 배우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2018년에 문득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접영을 마스터하자!'고 다짐을 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수영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영을 마스터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수영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한 시간 가량 숨이 차게 헤엄을 치고 잠드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또, 반년 정도 수영을 꾸준히 하였더니 잃어버렸던 키를 찾았습니다. 최근 1년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5년 넘게 변함이 없던 키가 1cm 이상 자랐습니다. 자유영이 자세 교정에 좋다고는 알고 있었으나, 몸소 경험하니 너무 신기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고마운 제 취미인 수영을 가온미디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든 취미 활동은 장비 구매부터**

접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영 실력은 물론이고 지구력, 상체 근력, 유연성 등 많은 것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능력을 장비로 보충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수영용품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 수영복: 수영복 가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에 탄력성 좋고, 락스 물에 오래 버티는 수영복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이 최고예요!
- 실리콘 수모: 천수모와 비교하여 착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잘 벗겨지지 않고 머리카락이 덜 젖어서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하지만 수모 역시 본인에게 맞는 것이 최고예요!
- 노패킹 수경: 원래는 고무 패킹이 있는 일반적인 수경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바꿨습니다. 노패킹 수경의 장점은 김 서림이 덜 하고, 잘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적응 중입니다.
- 오리발(핀): 접영을 배우기 시작하면 핀을 구매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대가 있어도 처음부터 좋은 것을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팁으로는 평소 신발 사이즈보다 5~10mm 작은 것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금세 늘어나서 수영할 때 벗겨질 수 있습니다.

**강습으로 부족한 것은, 유튜브브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수영 유튜브 'LOVELY SWIMMER'를 추천드립니다. 영법 노하우부터 평소에 궁금했던 수영 관련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수영을 시작해 보고 싶은 분들도 영상을 보면 흥미가 생길 것 같아 추천합니다! 🎧



인사Part 한승혜 매니저



## 따끈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에 딱!

### 밀푼유 나베 만들기

가온 여러분들께 2018년 한 해 동안 TV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SNS를 통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요리 중 하나인 '밀푼유 나베'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밀푼유 나베는 천 개의 이파리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식 디저트 밀푼유(mille-feuilles)와 나베(なべ)의 합성어로 일본식 퓨전 요리입니다. 요즘같이 따끈따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씨에 국물, 고기, 채소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다 맛볼 수 있어 저녁 메뉴로 만들어 먹기에 제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재료만 있다면 요리 동손이라도 만들기 쉬워서, '있어 보이지만 인풋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획기적인 요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료 청경채, 알배추 반통, 깻잎 약 20장, 숙주, 샤브샤브용 소고기, 팽이버섯, 표고버섯, 멸치 다시마 육수 750ml, 국간장,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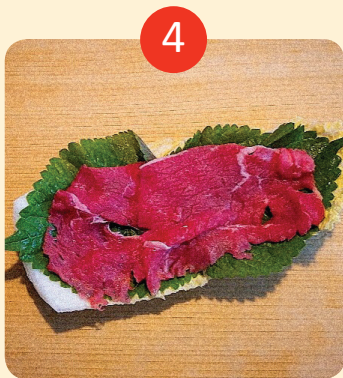
1 얇게 썬 샤브샤브용 쇠고기를 준비하고, 알배추, 깻잎, 청경채, 각종 버섯을 깨끗이 씻고 다듬습니다.



2 밀푼유 나베를 만들 전골냄비 바닥에 숙주와 청경채를 골고루 펼쳐 넣습니다.



3 흰색과 노란색의 조화로 밝은 느낌을 주는 배춧잎을 먼저 한 장 깔고, 그 위에 녹색의 깻잎 한 장을 얹고, 마지막으로 위에 얇게 썰어낸 붉은색의 쇠고기를 살포시 얹어줍니다. 배추→깻잎→고기 순서대로 1겹이 아닌 2겹 정도 쌓아주시면 더 빠르게 요리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4 3의 과정을 3~4회 반복해서 겹겹이 쌓고, 끓일 냄비의 높이에 맞춰서 3등분 또는 4등분해서 잘라줍니다.



5 숙주와 청경채 위에 자른 배추/깻잎/고기를 냄비 바깥쪽부터 빙 둘러 차곡차곡 채워줍니다. 이때 자른 단면이 위를 향하게 놓습니다. 중간에 빈 공간을 팽이버섯으로 채워주고, 맨 위에는 표고버섯으로 마무리합니다.



6 멸치다시마 육수, 국간장, 소금으로 육수를 내고 냄비에 부어서 약 20분간 끓여주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밀푼유 나베가 완성됩니다.

**Tip** 기호에 따라 남은 육수에 밥, 양파, 당근, 달걀, 참기름 등을 넣어 죽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스위트칠리소스, 팥콩소스, 간장소스와 곁들여 드시면 더욱 더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2019년, 대한민국 방방곡곡 축제와 함께 시작해요

## 주말 나들이, 데이트 코스로 좋은 2019년 겨울 축제

추위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2019년의 시작을 더 활기차고  
신나게 해 줄 전국 방방곡곡의  
겨울 축제를 소개합니다.  
이한치한으로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강원도  
눈축제부터 겨울에서 봄까지  
밤을 밝혀주는 빛축제까지.  
가온인들을 축제로 초대합니다.

사진출처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

###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눈꽃축제



#### | 강원도 태백산 눈축제 |

기간 2019.01.18(금)~2019.02.03(일) 주소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62 장소 태백산국립공원, 황지연못(문화광장), 태백역 등 시내일원 이용요금 무료(각종 유료체험은 별도 요금 있음)

###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얼음 낚시 축제



#### | 양평빙어축제 2019 |

기간 2018.12.28(금)~2019.02.17(일) 주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2-3 (백동저수지) 이용요금 입장료 5,000원 (5세 이하 무료), 낚시 용품-현장 구비

### 눈이 즐거운 아름다운 불빛축제



#### | 가평 오색별빛정원전 2019 |

기간 2018.12.05(수)~2019.03.31(일) 주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아침고요수목원) 이용요금 어른 9,5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6,000원 점등시간 17:00



#### | 파주 러브인 프로방스 빛 축제 |

기간 2018.11.10(토)~2019.04.30(화)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77 (파주 프로방스마을) 이용요금 무료입장(타운 내) 점등시간 일몰후~22:00





# 2019년을 함께할 책 세 권

## 가온인들의 지식과 감성을 자극할 추천 도서

올 해는 책 좀 읽어야지, 하고 매년 결심만 하는 가온인들을 위해, <가온누리>가 꼭 집어 세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 핑계대지 말고 2019년에는 휴대폰 보는 시간을 조금씩만 줄여 책 한 페이지라도 읽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이제 마케팅 하지 말고 '컨셉팅' 하라 | 트렌드 코리아 2019 |

저자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최지혜 등/ 출판 미래의 창/ 발매 2018.10.24  
몇 년 전부터 다가오는 한 해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책으로 <트렌드 코리아>를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 <트렌드 코리아>가 제시하는 올 해 소비 흐름 키워드는 '세분화', '콘셉트', '뉴트로', '필환경' 등으로 책의 저자 김난도 교수는 "마케팅 대신 컨셉팅을 하라"고 말한다. 이제 소비자들은 기능이 아닌 '콘셉트'를 소비하며 이미지에 열광하기 때문이다. 2019년의 떠오를 이슈들의 궁금하다면 이 책을 먼저 읽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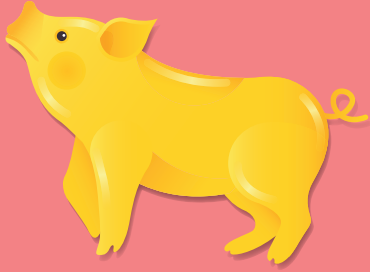
### 너무 많은 것을 들어야만 하는 당신에게 | 침묵 예찬 |

저자 마르크 드 스메트/ 출판 현대문학/ 발매 2007.06.30  
정신활동의 근본인 침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찬선 수행의 전문가 마르크 드 스메트의 산문집 <침묵 예찬>은 지친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라 말한다. 저자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과도 같은 것이 침묵이라고 하며 우리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온 '침묵'의 여러 면을 파헤치면서 침묵이 지난 미덕에 대해 예찬한다.



###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이라면 놓칠 수 없어 |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 출판 현대문학/ 발매 2016.04.25  
'하루키스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또 한편으로는 많은 평론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 '체국주의적'이라는 등의 비난 속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가 1979년 등단 이후 최초로 자신의 작가론적, 문단론적, 문예론적 견해를 풀어놓은 책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이다.



Tel +82 31 724 8500 Fax +81 31 724 8999 [www.facebook.com/kaonmedia](http://www.facebook.com/kaonmedia)  
KAONMEDIA bldg, 884-3, Seongnam-dae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13517, Republic of Korea  
[www.kaonmedia.co.kr](http://www.kaonmedia.co.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양한 KAON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